



리코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전기 시설을 포함한 기반 시설 민영화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자본 투자를 늘리고,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킨다. 당국의 자산을 민간 부문,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 내로 이동시키는 것은 비용을 줄이고 푸에르토 리코의 전기 시스템에 효율적인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

푸에르토 리코의 전력 회사는 민영화되어야 할 유일한 회사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예산안은 테네시 강 유역 개발 공사와 연방 전력 마케팅 관리국의 민영화를 제안하고 있다. 국영 기업의 민영화가 1980년대 대처 개혁 이후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그러한 개혁은 이미 오래 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cato.org/blog/privatizing-puerto-rico-power>